

“노래방 키패드로 시작… 의료기기·신사업까지 넓은 30년”

메트로가 만난 기업人

김형운 차고무키보드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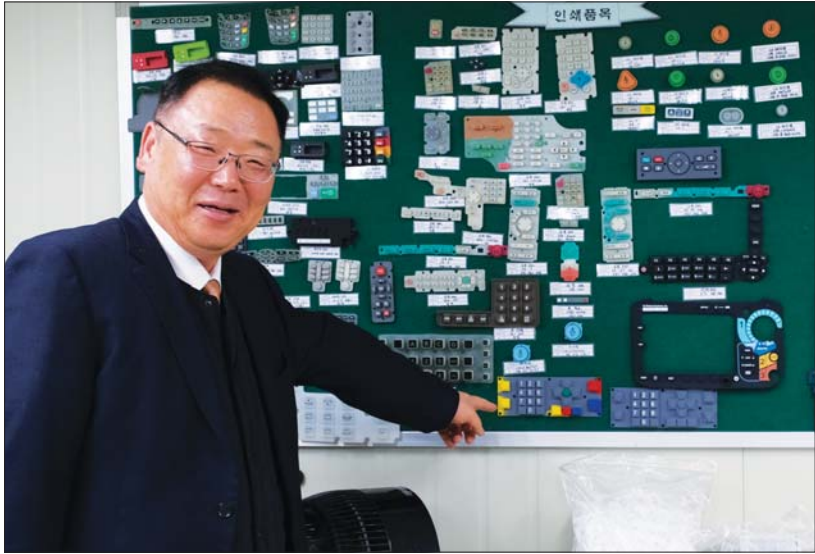
한때 노래방 기계에 들어가던 키패드를 만들던 회사는 30년이 지나 조정밀 의료기기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됐다.

놀라운 것은 강산이 세번 바뀌는 동안 회사 매출이 뒷걸음질 치는 일이 단 한번도 없었다. 직원들 월급 밀리는 불상사도 없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업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수출 성과도 나타나 올해 150억원 가량의 매출 가운데 약 30억원을 일본 등 해외에서 거뒀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설계, 개발, 시험, 양산의 모든 제조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품종 소량 생산 등 어떤 형식의 주문도 대응이 가능하다. 2029년까지 500억~6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게 목표다.”

김형운 대표(사진)는 94년에 차고무키보드를 창업했다. 회사명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 특수 고무·실리콘 러버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신사업분야 개척, 제조라인 스마트공장화, 우수 협



김형운 차고무키보드 대표가 본사 공장에서 그동안 생산한 키보드, 패드 등을 설명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력사 유치 등을 골자로 하는 ‘비전 2029’도 만들었다.

“회사 초창기에 은행 업무를 보러 갔는데 창구에서 회사 이름을 크게 부르더라. 나도 잠시 웃음이 나왔다. ‘차고무키보드’라는 이름을 바꿔볼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었다. 그래서 사명을 고수하기로 했다. 해외에는 ‘CKB(CHALGOMU KEYBOARD)’라는 이름으로 알려져있다.” 경기 파주에 있는 본사에서 만난 김 대표의 설명이다.

차고무키보드는 ‘대한민국 실리콘 제품 생산기업 NO.1’을 목표로하고 있다. 내외장 키패드, 레이저마킹 키패드, 플

라스틱 키 접합 키패드 등을 제조해 250여개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다. 전체 매출의 65% 가량이 의료기기 제조사에서 나온다. 국내에 있는 의료기기 회사 2곳 중 1곳은 차고무키보드의 실리콘 키패드 등을 가져다 쓴다.

김 대표는 “실리콘은 다른 제품과 융합이 잘 되지 않는다. 특수 접합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가 개발한 ‘이형 접합 실리콘 제품’은 높은 접합 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에 응용할 수 있다. 게다가 고무나 실리콘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 보통 절연재로 쓰이는데 우리는 전기가 통하는 ‘도전성’ 제품도 개발

해 의료용 패드 등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음파 장비 등에 들어가는 트랙볼은 국내에선 차고무키보드만 생산하고 있다. 특히 트랙볼은 의료장비 외에도 항공, 선박, 산업 분야 등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다.

“고가인 초음파장비가 트랙볼 문제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때문에 대부분 일본, 영국, 독일 등에서 트랙볼을 수입해서 썼다. 수입하던 트랙볼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산화했다. 국산 트랙볼을 이젠 삼성메디슨 등 국내 회사 뿐만 아니라 GE,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

에 납품하고 있다.(미소)”

김 대표는 요즘 신사업 준비를 위한 재미에 푹 빠져있다. 소의 귀에 장착해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어태그’가 그중 하나다. 통신이 가능한 이어태그는 소의 왕성한 활동에도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야한다. 외산 제품의 경우 개당 12만원 정도지만 차고무키보드는 스타트업과 협력해 개당 4만원 정도로 단가를 낮췄다. 이어태그 외부는 연성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안에는 충전재를 넣어 민감한 기계장치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방수와 적절한 강도를 갖추도록 했다.

김 대표는 “국내에서 1년에 도축하는 소는 100만 마리 정도로 시장성이 충분하다. 이 제품은 올해초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소 이어태그와 함께 공장 생산 라인에서 안전지대 경계목 역할을 하는 ‘풋스위치’도 또다른 중소기업과 협업해 개발하고 있다.

이 제품은 미터당 8000원 정도다. 이런 신사업을 통해 내년엔 매출 250억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전체 인원의 10%가 영업인력이다. 다른 곳보다 많은 편이다.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영업사원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가져와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활짝 웃었다.

/파주(경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권기재 대동 사업운영총괄 부사장(왼쪽)이 이경백 대한제강 대표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제강 본사 GREF 스마트팜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동

대동-대한제강

대규모 스마트팜 협력

AI·로봇 기반 온실 농업 전주기 추진

대동이 대한제강과 손잡고 스마트팜 기술 협력과 사업 발굴 등에 나선다.

대동은 대한제강과 온실 구축부터 재배, 수확, 유통까지 온실 농업 전주기에 걸쳐 AI솔루션을 제공하는 ‘대규모 스마트팜(Smart Farming)’ 산업 리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차세대 대규모 스마트팜 핵심 기술 공동 개발 ▲에너지·AI·로봇 기반 스마트팜 사업 공동 추진 ▲스마트 농산물 확산 사업 공동 참여 등 3개 분야에서 협력한다. 대동은 데이터와 AI 기반의 생육 솔루션과 컨설팅, 재배 및 수확을 수행하는 농업로봇, 스마트팜 환경제어 등 미래농업 기술을, 대한제강은 공장 폐열 회수·활용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스마트팜 사업 노하우를 가지고 협력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중소 68.6% “내년 수출 늘 것”

중기중앙회, 수출 중소기업 1300곳 조사
수출전망 긍정 응답, 부정보다 두 배
감소전망 절반, 중국산 저가공세 우려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는 중소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수출 감소를 예상한 기업 2곳중 1곳은 가장 큰 이유로 중국산 저가 공세를 꼽았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초 수출 중소기업 1300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 조사’를 실시해 21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 2026년 수출이 20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본 중소기업은 68.6%, ‘감소’는 31.4%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86.4%)과 의료·바이오(86.1%) 수출 기업이 내년 수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수출 증가’를 예상한 이유(복수응답)는 ‘신제품 출시, 품질 개선 등 제품경쟁력 상승’(47.1%)이 절반에 가까웠고 ▲수출시장 다변화(29.8%) ▲환율 상승 등 가격 경쟁력 상승(21.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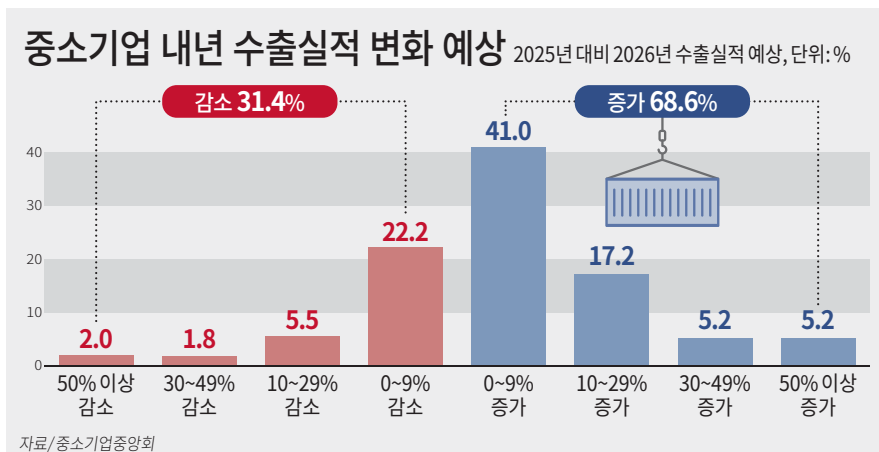
‘수출 감소’ 전망 중소기업의 49.3%(〃)는 애로사항으로 ‘중국의 저가공세 심화’를 꼽았다. 이외에 ▲환율 변동성 확대(44.6%) ▲원부자재 가격 급등(37.0%) ▲미국·EU 관세정책 불확실성(35.0%) 등의 순으로 많았다.

수출 희망지역은 미국(21.0%)이 가장 많았고 유럽(15.2%), 일본(10.6%), 중국(10.6%) 등이 주를 차지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중점 과제(1+2+3순위)로는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 확대(53.5%) ▲중국 저가공세 대응 체계 구축(35.8%) ▲미국·EU 관세 대응을 위한 외교 강화(35.1%) ▲해외(신흥시장 등)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31.5%) ▲해외 인증·규제 대응 지원(27.2%) 등을 바랐다.

중기중앙회 추모갑 경제정책본부장은 “각국의 수출 규제 강화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정교한 디자인에 주행·감성 짝 채웠다”



자동차 시승기

볼보 XC40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B4, 197마력
150km 넘어도 유지되는 직진 안정성
620km 주행서 기록한 연비 11.2km/L
휠킴기반 UX, 9·12.3인치 디스플레이

볼보의 막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XC40은 절제된 고급스러움으로 작지만 담백함이 매력적이다.

2026년형 볼보 XC40을 가지고 서울에서 강릉까지 2박 3일 동안 총 620km를 경험하면서 차량의 주행 감각과 실사용성을 충분히 체험했다. 콤팩트 SUV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마주하고 주행해보면 체급을 넘어선 안정감과 완성도를 느낄 수 있었다.

XC40의 제원은 전장 4425mm, 전폭 1865mm, 전고 1640mm, 휠베이스 2702mm를 갖추고 있지만, 짧은 오버행과 넓은 차폭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비례감은 차급을 넘어서는 안정감을 줬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픽셀 LED 헤드램프와 리뉴얼된 전·후면 범퍼는 볼보 특유의 절제된 디자인 철학을 유지하면서도 강한 존재감을 남긴다.

실내는 볼보의 철학인 ‘인간 중심’을 체감할 수 있다. 군더더기 없이 정돈된 대시보드는 시각적 안정감을 주고, 작은 차체를 고려한 영리한 수납공간 배치가 인상적이다. 울트라 트림에 적용된 오레포스 크리스탈 기어노브와 드리프트우드 트림은 북유럽 특유의 감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불러온다. 다만 시트는



볼보 XC40 전면부. /이승용 기자

국산차보다 단단한 편으로 장거리에서는 허리를 잘 잡아주지만, 엉덩이 쪽 피로가 약간 느껴질 수 있다.

2026년형 XC40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차세대 UX 플랫폼의 도입이다. 휠킴 스냅드래곤 콤팩트 플랫폼 기반의 ‘Volvo Car UX’는 반응성과 그래픽 품질이 대폭 향상됐고 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는 주행 상황에 맞춰 정보를 직관적으로 배치한다. 티맵 오토, NUGU Auto, 티맵 스토어,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까지 지원해 차 안에서 OTT 시청, 음악 감상, SNS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OTT는 오직 P(주차) 모드에서만 가능하다.

XC40의 주행 감각은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준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B4 엔진은 최고출력 197마력을 발휘해 저속 영역에서 전기모터가 자연스럽게 개입해 부드러운 출발을 돕는다. 도심에서는 스티어링의 정밀함과 짧은 회전반경이 장점으로 발휘되고 좁은 골목에서도 차체를 안정적으로 이끈다.

/이승용 기자 lsy2665@